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11(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10. 10. (월)	담당부서	기계로봇과
담당과장	정창현 과장(044-203-4310)	담 당 자	이헌두 사무관(044-203-4315)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

- 한화테크윈, '17년초 협업로봇 세계시장 출시 계획 밝혀 -
- 주형환 산업부장관, 로봇산업 간담회에서 발전방향 제시 -
- 로봇 수요창출, 전문기업 육성 등 향후 5년간 5천억원 민관공동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제조로봇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 창출, 전문기업 육성, 연구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0.11(화) 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로봇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함**

□ 이번 간담회는 미래 우리산업의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발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비전 수립의 일환**으로,

* 신산업 민관협의회 : 신산업분야 각계 각층 대표 35인으로 구성되어 4.11일 발족 (공동의장: 주형환 산업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라 제조로봇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도 로봇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6. 10. 11(화) 11:40~13:20, 한국기계연구원(대전)
- 참석자 : 주형환 산업부 장관, 로봇업체 대표, 스마트공장추진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계 등 20여명 (참석자 명단 붙임)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요발언】

4차 산업혁명과 로봇

□ 주형환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 먹거리산업인 로봇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혁신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따른 맞춤·유연생산과 속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제조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20여년만에 독일에서 신발생산을 재개하는 아디다스 사례에서 보듯이, 로봇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발**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 리쇼어링: 기업이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저렴한 국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컬음

□ 로봇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의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며, 이를 위해 ①**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통하여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R&D 투자와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로봇산업 발전방안 주요 추진과제 >

【목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화	
수요기반 강화	❶ 첨단제조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❷ 서비스로봇 공공수요 발굴, 보급·확산 ❸ 시장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공급역량 강화	❹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 지정, 전문기업 육성 ❺ 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 설치 및 로봇 전문인력 양성 ❻ 로봇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경쟁력 강화
➡ 향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총 5,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	

※국비 지원규모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0-11 09:10:12

수요기반 강화

□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고, 더불어 로봇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임

○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들을 투입**하는 **시범프로젝트를 '18년까지 20개 추진** 후, 효과가 검증된 업종들을 중심으로 '19년 이후 본격 확산시켜나가겠음

□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를 위해 기본적 내수 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사회안전 로봇**을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겠음

* 소셜로봇: 사람과 대화, 감정 교감이 가능한 로봇으로 매장, 홈서비스 등 활용 가능

○ '20년까지 80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 적용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 등을 경기장이나 공항 등에 투입**

□ **무인이송로봇 안전을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 기준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의료재활로봇의 활용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제도정비를 추진**

공급역량 강화

□ **로봇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과 산업화 잠재력을 보유한 로봇 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향후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음(기업당 100억원 내외)

○ '20년까지 혁신적 로봇 新제품을 20개 이상 개발·출시 지원

□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고속·고출력 휴머노이드 플랫폼, 보행·조작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 세계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추진

○ 연말까지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를 선발, 5년간 150억원 집중 투자

□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인턴십**도 지원하는 등 '20년까지 우수 연구인력 300명, 현장 전문인력 1,000명 이상 양성 추진

□ 모터,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부품의 국산화 등 **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로봇 R&D 지원방식도 혁신**하는 등 **향후 5년간 민관 공동**으로 **3,5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음

○ **상용화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차별화**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형 과제도 도입**

* (상용화기술) 기업 주관, 사업화 수요에 기반하여 성장·유망분야 제품 중심 지원
(원천기술) 대학은 중소형·기초원천, 출연연은 중대형·임무부여형 중장기 지원

전망 및 기대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글로벌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제품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중**이라고 전망함

□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0-11 09:10:12

【참석자 주요 발언】

□ 간담회에 참석한 로봇산업 관계자들은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밝힘**

□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 '17년초**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협업로봇을 국내 최초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 신대표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서는 **협업로봇 등 첨단제조로봇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글로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협업로봇 시장에 한화테크윈이 본격 진출**하여 '17년부터 세계 주요 제품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발표

* 협업로봇: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자와 공동으로 다양한 작업수행이 가능한 로봇

□ **(김성락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 금년 11월 **로봇사업의 확장적 분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로봇 전문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로봇사업 본부와 공장의 **이전을 진행중**으로 대대적인 시설·입지 투자를 통해 **기존 대비 2.5배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로봇 전문기업화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투자를 강화**하여 **세계 유수의 로봇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함

□ **(박일환 SKT 단장)** 소셜로봇은 세계적으로 상용화 초기단계이나 미래 서비스로봇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유망분야로 **SKT는 '18년 신제품 출시를 통해 소셜로봇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힘

○ 그간 축적해온 **음성인식 및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음악,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

□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무인이송로봇은 이송·물류 작업의 무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망품목으로, 유진로봇에서 개발중인 **'고카트(GoCart)'는 마지막 현장테스트중**으로, **'17년초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 밝힘

○ 동 제품은 공간인식,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무인이송로봇으로 일차적으로 **병원, 요양원 등**에서 약품, 검체, 식사, 의료기기 등의 **무인운반 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향후 **호텔, 공장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 현재 국내를 비롯해 유럽, 미국, 뉴질랜드 등 시장 진출을 준비중임

□ **(김정호 로보스타 대표)** 로보스타는 **양팔로봇을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재 수요기업 공정에 적용하는 테스트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고 **'17년에는** 가격, 품질, 성능 확보를 위한 **양산화 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양팔로봇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오준호 KAIST 교수)**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점에서 상용화연구센터의 설치, 연구인력 양성, 연구역량의 집중 등 정부 정책방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

try of Trade,
try and Energy

【개발제품 시연】

□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팔로봇 시제품**과 유진로봇의 **무인이송로봇 시연을 참관함**

구 분	개 요
 양팔로봇(기계연구원)	* 기존 제조용로봇이 적용되기 어려운 정밀조립,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공정에 활용 가능한 첨단제조로봇 *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고 양팔 동시작업으로 작업 효율성이 높아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공정에 적용 가능
 무인이송로봇(유진로봇)	* 위치인식, 경로계획, 자율이동, 안전이동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효율화 가능 (소형/중형 2종) * 병원용 물류환경에 우선 적용후 호텔, 공장 등 다양한 물류환경에 확대 적용 가능

○ 기계연구원 연구실에 설치된 **휴대폰 포장공정 라인**에서 양팔로봇 2대가 동시에 소형 개별박스에 휴대폰, 배터리, 이어폰 등 **구성물을 포장하고,** 컨베이어벨트로 이동된 개별박스 10개를 다른 양팔로봇 1대가 대형 **마스터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0-11 09:10:12

○ **무인이송로봇**은 포장된 마스터 박스를 싣고 **목표 지점으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시연을 선보임

【향후 계획】

□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로봇산업 발전방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금년 12월에 발표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반영될 계획임**

※ 붙임 1. 로봇산업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3.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이헌두 사무관(044-203-43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로봇산업 간담회 개요**

□ **개최배경**

○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비전 수립의 일환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첨단제조로봇 및 유망 서비스로봇 등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0.11(화) 11:40~13:20 / 기계연구원(대전)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로봇 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스마트공장 추진단, 신산업 민관협의회, 유관기관 등 20여명

○ 주요 내용

①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시제품 시연 참관

②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로봇 개발동향 발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③ 로봇산업 발전방안 발제(산업부) 및 토론 (참석자)

□ **세부계획**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1:40～12:05	25'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시제품 시연 참관 이동(5분)	14동 연구실 → 본관 회의장
12:05～12:10	05'	・모두말씀	산업부장관
12:10～12:15	05'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로봇 개발동향 발표	KEIT
12:15～12:30	15'	・로봇산업 발전방안 발제	산업부
12:30～13:15	45'	・종합 토론	오찬
13:15～13:20	05'	・마무리말씀	산업부장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0-11 09:10:12

붙임2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 직 위	비 고
정부 (2)	주 형 환	산업부 장관	
	김 정 환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업계 (5)	신 현 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	제조로봇
	김 정 호	로보스타 대표이사	제조로봇
	신 경 철	유진로봇 대표이사	서비스로봇
	김 성 락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	제조로봇
	박 일 환	SKT 디바이스지원단장	서비스로봇
연구계 (2)	임 용 택	기계연구원장	
	여 준 구	KIST 로봇미디어연구소장	
학계 (2)	오 준 호	KAIST 교수	DARPA DRC 우승 ('15)
	조 규 진	서울대 교수	'16 소프트 로봇 세계대회 우승
유관 기관 (4)	박 진 우	스마트공장추진단장	서울대 교수
	정 경 원	로봇산업진흥원장	
	김 주 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신산업 민관협의회 (ICT 융합분과장)
	이 성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산업 민관협의회 (ICT 융합분과)
배석 (4)	정 창 현	산업부 기계로봇과장	
	김 범 수	산업부 스마트공장팀장	
	김 경 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로봇 PD	
	이 규 택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 PD	

붙임3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입니다.

로봇산업을 이끌고 계시는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을,
기계·로봇분야 기술의 선도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개최배경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제가 산업통상부로 취임한 이후,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산업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 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지난 4월 미래 우리산업이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에는 산업전반의 발전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산업발전 비전 수립의 일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 먹거리 신산업이기도 한
로봇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0-11 09:10:12

3 로봇산업의 중요성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로봇시장은
기존의 제조용 로봇 뿐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의 활용이 확대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세계 로봇시장(억불): ('10) 96 → ('14) 167 [제조용 107, 서비스용 60]

특히,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맞춤생산과 속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전자 산업 등 이미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뿐 아니라 신발, 화장품, 제약 등 로봇수요
잠재업종에서도 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을 활용한 스피드팩토리(speed factory)를 통해
24년만에 독일에서 신발생산을 재개한 아디다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로봇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발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우리의 과제 및 정책방향

그동안 우리 로봇산업은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 제조용로봇 시장점유('14): 中(25.0%), 美(16.8%), 獨(12.1%), 日(9.3%), 韓(4.7%) 순

지난해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DARPA Robotics Challenge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 DARPA: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KAIST팀(오준호 교수)이 "DRC 휴보"로 우승('15.6월)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제조로봇과 청소로봇을 제외하면,
산업전반의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산업성장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서비스로봇중 청소로봇이 64%로 절대비중 ⇔ 외국은 청소로봇 20% 이외에 의료 22%, 국방 17%, 농업 17%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 시장이 발달

또한, 오랜 업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 로봇기업들에 비해 아직 우리는
역량있는 로봇 전문기업이 부족합니다.

* 국내 500여개 로봇기업중 매출 100억원을 넘는 기업이 전체의 10%에 불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 로봇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를 위하여,
① 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통하여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 R&D 투자와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요기반 강화】

먼저, 시장창출을 위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고, 더불어 로봇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0-11 09:10:12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금년말 2,700개, 오는 '20년까지 1만개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1단계로 '18년까지 20개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00억원 투입),
효과가 검증된 업종을 중심으로
2단계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서비스로봇 시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본적 내수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사회안전 로봇을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이송 로봇이나 재활로봇의 경우, 국공립병원 내
수요에 시범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20년까지 총 240억원을 투입하여 8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들을
경기장이나 공항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로봇지원단 총감독이신 오준호 교수님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만, 기업인 여러분도 올림픽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선제적 제도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인이송로봇은 기업이 제품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기준을
'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무인이송로봇 시장 확산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수억원대에 달하는 비용으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재활로봇은 공적보험 적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장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급역량 강화】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우리 로봇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로봇 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산업화 잠재력을 보유한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향후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년까지 혁신적 로봇 新제품을 20개 이상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로봇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인간형로봇을 연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고속·고출력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연구하고 보행·조작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0-11 09:10:12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대학 또는 연구소를 선발,
5년간 15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高와 특성화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인턴쉽 프로그램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 캡스톤디자인: 기업의 현장애로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팀단위로 참여, 문제 해결방안 제시

이를 통해 '20년까지 우수 연구인력 300명,
현장전문인력 1,000명 이상을 로봇산업에 공급하겠습니다.

끝으로 로봇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직다관절 로봇의 경우, 제품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모터, 감속기,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수입의존율이 47%에 달하고 있어,
우리 로봇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부품의 국산화 뿐만 아니라,
시스템설계기술, 지능·인지기술, 정밀구동·제어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총 3,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R&D 지원방식도 전면 혁신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과 새로운 시장창출 기반이 될
원천기술 개발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성능·스펙 위주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 DARPA와 같이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임무수행형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5 당부 말씀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계산업 뿐 아니라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하드웨어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로봇기업 KUKA만 하더라도
Industry 4.0에 적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출시하였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안내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스마트공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첨단제조로봇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소셜로봇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하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하는 발전방안은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에 제시할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0-11 09:10:12